

제직회



서원석 장로

제직회의 역할과 활성화 방안

“제직회 부서 세분화로 전문성을 강화하고,
당회를 점차 개방해야 한다.”

우리 새문안교회의 조직은 최고의 의결기구인 공동의회와 교회 운영을 지도 감독하는 당회, 그리고 교회의 여러 가지 사업을 직접 관장하는 제직회로 구성되어 있다. 또 당회의 기구로서 예배 음악을 담당하는 성가대와 교회교육을 담당하는 교회학교가 있으며 자치적으로 선교활동을 하는 선교단체가 있다. 그 외에 사회복지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새문안교회 복지재단이 있다. 여기에서는 제직회에 관한 사항을 다루려고 한다.

제직회의 구성과 업무

제직회는 시무목사, 전도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서리집사 그리고 당회의 결의에 의해 다른 교회에서 이명한 향존직(장로, 안수집사, 권사)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언권회원으로 은퇴교역자, 당회의 언권회원, 은퇴한 향존직(장로, 안수집사, 권사)이 참석할 수 있다.

제직회의 업무는 공동의회에서 결정한 예산을 집행하고 재정에 대한 일반 수지의 예산과 결산을 집행하고 구제비의 수입과 지출을 관장하고 특별헌금을 취급한다. 공동의회에서 위임한 세입 범위 내에서의 예산의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고 예비비의 사용을 결정한다. 그 외에 당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는 것을 그 업무로 한다. 위의 내용을 한마디로 설명하면 교회의 여러 가지 사업을 위하여 예산이 필요하게 되는데 그 예산의 집행을 수행한다고 보면 되는 것이다.

우리교회는 총 20개의 부서로 제직회가 구성되어 있다. 2002년에는 담임목사님의 목회 방침에 따라

심방부와 새교우부가 신설되어 22개 부서로 늘어나게 된다. 제직회 각 부서에서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당회의 지도 감독을 받게 되어 있다. 즉 당회의 해당 위원회에 보고, 계획 및 청원사항을 사전에 보고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당회의 각 위원회 별로 지도 감독을 받는 부서는 다음과 같다.

예배위원회 : 예배부, 홍보부, 친교부, 심방부

음영위원회 : 음영부

선교위원회 : 해외선교부, 국내선교부, 북한선교부, 전도부, 새교우부, 사회부,

교육위원회 : 교육1부, 교육2부, 교육3부, 정보통신부

관리위원회 : 서무부, 관리부, 경조부, 수양관부, 봉사부, 재정부, 회계부

제직의 직분

제직회를 구성하는 목사, 전도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서리집사 가운데 향존직에 대한 직분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장로의 직무는 “장로는 교회의 택함을 받고 치리회원이 되어 목사와 협력하여 행정과 권징을 관리하며, 교회의 신령상 관계를 살피며 교인들이 교리를 오해하거나 도덕적으로 부패하지 않도록 권면하여 회개하지 않는 자가 있으면 당회에 보고한다”라고 헌법(정치 제39조)에 규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핵심이 되는 부분은 “치리회원이 되어 목사와 협력하여 행정과 권징을 관리하며”라고 생각한다. 치리, 행정과 권징을 관리하는 것이 주임무이다. 현실적으로 당회는 교회에서 총회 헌법의 범위 안에

서 규정을 정하고 이를 시행하며 치리까지 겸하는, 이른바 3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할 것이다.

집사의 직무는 “교회의 택함을 받고 제직회의 회원이 되어 교회를 봉사하고 헌금을 수납하며 구제에 관한 일을 한다”라고 헌법(정치 제50조)에 규정하고 있다. 간결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봉사’와 ‘사업의 수행’을 그 직무로 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교회의 큰 일꾼을 뜻하는 것이다. 그러나 요즘 교회의 현실은 장로의 보조자로서 또는 장로가 되는 징검다리로서의 위치를 지키고 있다. 봉사자로서의 자리매김을 분명히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헌법 상에서의 집사는 안수집사를 의미한다.

권사의 직무는 “권사는 교회의 택함을 받고 제직회의 회원이 되며 교역자를 도와 궁핍한 자와 환난당한 교우를 심방하고, 위로하며,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해 힘쓴다”라고 헌법(정치 제52조)에 규정하고 있다. 핵심적인 권사의 직무는 어려운 환경에 처한 교우를 위로하는 것이다. 이것은 목사님의 사역을 직접적으로 돕는 일이 되는 것이고, 교회의 구석구석을 살피는 일을 하는 참으로 소중한 일이다. 이는 사랑으로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고, 여성 특유의 따뜻함과 섬세함으로 교우들을 살피는 것이 권사의 중요한 임무라고 할 수 있다.

바람직한 제직회의 운영

장로교는 민주주의의 원칙을 잘 따르고 있는 점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우리 교회는 제직회의 사업이 당회 위원회의 세심한 지도를 받고 당회의 인준을 거쳐 실행에 옮기게 된다. 여기에서 독단으로 이뤄지는 일은 없으며 제직원 모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민주적인 체제를 가지고 있다. 다만 연초에 결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의 제한을 가져오는 경우, 새로운 사업의 시도가 다소 어려운 때가 있으나, 이 또한 제직원들의 열성적인 참여와 지혜

가 동원되면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다.

장로의 기능에 대하여 조심스럽게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장로의 직분이 “치리회원이 되어 ... 행정과 권징을 관리하며 ..., 권면하며 ..., 당회에 보고한다”로 감독의 의무가 주어져 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제직회 사업의 거의 모든 권한을 장로가 가지고 있으며 또한 장로 스스로가 감독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장로의 업무를 안수집사나 권사에게 점진적으로, 더 많은 봉사의 기회를 할애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이다. 이 경우 우려되는 것은 경험이 부족하고 교회 전체의 분위기를 잘 알지 못하는 안수집사나 권사가 교회의 중요한 사업에 실수가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신년도 사업을 심의할 때 충분히 검토되고 있고, 또 시급하게 일어나는 일들은 해당되는 당회 위원회의 지도를 받게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해소되리라고 본다.

또한 제직회 부서를 더욱 세분화하여 과중한 부서의 사업을 나누어 새로운 부서를 만들어 봉사의 기회를 넓히는 것이다. 이번에 전도부의 업무이던

◇2001년도 제직들이 제직수련회에서 제직서약을 하고 있는 모습.



심방과 새교우 업무를 새 부서로 나눈 것은 시의 적절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예를 들면, 국내선 교부도 중점사업의 선택에 따라 농어촌선교, 기관

선교, 학원선교, 군선교 등으로 나눌 수 있고 해외 선교부도 지역권으로 나누어 동남아선교, 동북아선교, 러시아선교, 베트남선교 등으로 나눌 수 있고, 교육부도 연령에 의해 나누어지는 교육 1, 2, 3부 외에 베텔성서반 같은 성경공부반을 담당목사님에게만 맡기지 말고, 정책적으로 뒷받침하는 교육부서, 또는 장애인들을 위한 교육부서를 만드는 것도 가능하리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더욱 전문화되고 적극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조치는 지금까지 제직회 부서의 중요 임원 외에는 참여도가 떨어지는, 형식적인 부서 제직원의 참여를 구체적인 관심으로 연결할 수 있으리라 본다. 끝으로 한 가지 더 제안하고 싶은 것

은, 향촌직이 교회 전체의 분위기를 잘 파악하기 위하여 적어도 제직회 부서장이 되는 안수집사나 권사는 당회를 방청하도록 하는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부정적인 견해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해당 업무에 대해서만 방청을 허락한다든지, 운영의 묘를 살려서 당회를 점진적으로 개방하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교회의 성장은 어떻게 하면 평신도의 지도력(Leadership)을 계발하고 이를 교회 사역에 얼마만큼 활용하는가에 달려있다고 본다.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평신도의 저력을 주님의 몸된 교회에 쏟을 수 있는 기회와 여건이 더욱 마련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정책당회

심방부와 새교우부 신설, 10개 교구화, 새문안교양대학(가칭)설립과 지도자양성 장학제도 등에 대한 논의

2002년도 목회를 위한 정책당회가 10월 12일(금) 오후 7시부터 대한성서공회 로스기념관에서 열렸다. 13일(토) 새벽 4시까지 계속된 정책당회에서는 이수영 담임목사님이 제시한 목회 방침과 당회원들이 제시한 다양한 의제들이 논의되었다.

협의된 중요한 내용을 보면, 현행 8교구 가운데 일부 교구가 주택지 조성으로 교우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가 하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교구도 있고 거주지역이 확대되는 교구도 있어서 8개 교구를 10개 교구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제직회 전도부의 업무이던 심방과 새교우 업무를 분리해 앞으로는 심방부와 새교우부가 각각 담당한다. 심방 업무를 더욱 강화하여 구역을 철저히 돌보도록 하고 우리 교회를 찾는 새교우들을 등록, 교육하고 교회에 속히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업무에 역점을 두기로 하였다.

또한 구역장의 마음 가짐과 충실한 심방업무의 추진을 위하여 구역장의 임기를 1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중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임기제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한편, 현재 한국교회음악교육원이 성공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을 경험으로 하여, 우리교회에 출석 중인 교수 요원을 자원봉사자로 활용하여 종합대학 수준의 교양과목강의를 제공하는 「새문안교양대학(가칭)」의 설립을 추진하기로 하고 그 연구팀을 발족하기로 하였다.

미래의 한국교회 지도자를 양성하는 목적으로 인재를 선발하여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는 새로운 장학제도를 신설하기로 하였다.

그 외에도 농촌교회 지원정책 전환 문제, 대(對)사회 구제 및 복지사업의 확대, 병원선교 지원 방안, 영어예배를 신설하는 방안, 자원봉사제도의 확산, 전 교인 선교지역 하나 갖기 운동, 전 교인 대외봉사 하나 갖기 운동, 해외선교 지역별팀 및 기도후원회의 조직 등 다양한 의제가 논의되었다.

